

스웨덴 소장 신여성 최영숙 관련 자료 소개 (2)*

이 효 진**

1. 자료 해제
2. 엘사 베르나도트의 편지 (1926년 8월 28일자 편지)
3. 최영숙의 죽음, 그 후: 하랄드 달그렌의 추모글 (1935년)

1. 자료 해제

최영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국에 남아 있는 단편적인 자료로는 최영숙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에서 최영숙은 생전에는 기대받는 인물로, 사후에는 ‘요사스런 귀신’¹⁾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한국에 남아 있는 최영숙의 생애나 인물상에 대한 기록들은 사후에 남겨진 추측성 기사가 많고 최영숙과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남긴 기록은 적다. 『신여성』에 실린 “-청춘비화- 경제학사 최영숙씨 비련애사”²⁾나 『동광』의 기사 “경제학사 최영숙 여사와 인도 청년과의 연애

* 이 글은 2019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9-INC-22 30004).

**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 조교수

1) 선우 훈·선우 진, 『민족의 수난/항일 수난 2대』, 명성출판사, 1976.

2) 馮江人, “-青春悲話- 經濟學士 崔英淑氏悲戀哀史”, 『신여성』, 1932년 6월호.

관계의 진상”³⁾에서 최영숙의 절친한 친구인 임효정의 증언을 일부분 담고 있긴 하지만 최영숙이라는 흥미로운 인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가까이서 본 지인들의 생생한 증언이 더 필요하다.



[사진 1] 스웨덴 공주 엘사 베르나도트 (1924년경)
(출처: 시그투나스티프텔센 도서관 아카이브)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지난 “스웨덴 소장 신여성 최영숙 관련 자료 소개 (1)”⁴⁾에 이어 스웨덴인들이 바라본 최영숙에 대한 자료를 두 편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자료는 바로 스웨덴의 공주 엘사 베르나도트(Elsa Bernadotte, 결혼 후 성은 세데그렌, Cedergren)가 시그투나스티프텔센의 교장 만프레드 보크퀴비스트(Manfred Björkqvist, 1884-1985)에게 보낸 편지이다. 최영숙

은 중국대사관을 통해 스웨덴에 입국한 후 기독교 단체인 K.F.U.K(Kristliga Föreningen av Unga Kvinnor)를 찾아가 이 단체의 대표였던 엘사 베르나도트를 만나게 된다. 엘사 베르나도트는 이 동양에서 온 한 어린 여학생의 등장에 몹시 당황하였지만⁵⁾, 몸소 최영숙의 보증인이 되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

베르나도트는 스웨덴 왕자 오스카 베르나도트(Oscar Bernadotte, 1859-1953)와 에바 문크(Ebba Munck af Fulkila, 1858-1946)의 사이에

3) “經濟學史崔英淑女士와 印度青年과의 戀愛關係의 真相”, 『동광』, 1932년 제4권 제6호.
4) 이효진, “스웨덴 소장 신여성 최영숙 관련 자료 소개 (1)”, 『이화사학연구』 62, 2021.
5) 멀고먼 동양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최영숙을 만난 엘사 세데그렌의 당황스럽고 급박한 마음이 편지 속 필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서 태어난 백작 부인으로 1929년에 사무총장인 휴고 세데그렌(Hugo Cedergren)과 결혼해서 엘사 세데그렌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금은 엘사 세데그렌으로 더욱 알려져 있기도 하다. 엘사 세데그렌은 1919년부터 K.F.U.K의 멤버가 되었으며 1922년부터 위원회에 참가, 1925년부터 1943년까지 대표로서 활동하였다. 1955년에는 여성기독교위원회(Kristna kvinnors samarbetskommitté)를, 1959년에는 스웨덴 여성 국제회의(Sveriges ekumeniska kvinnoråd)를 창립하였으며 대표를 역임하는 등 여성 기독교 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다. 엘사 세데그렌은 스웨덴 황태자보다 일여 년 앞선 1925년에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 스웨덴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여학교를 순방하기도 했다. 엘사는 이국적인 어린 손님과 의 깜짝 만남을 가진 후 최영숙을 시그투나스티프텔센(SigtunaStiftelsen)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에 소개하기로 결심한다. 이곳은 1918년 8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는데, 최영숙을 소개받은 설립자 만프레드 보크퀴비스트는 목사 집안 출신으로 보수적인 기존 기독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독교를 구상하였고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시그투나스티프텔센을 설립하였다. 그는 오래된 전통 기독교적 생각을 벗어나, 기독교적 인본주의, 문화적 다양성과 지식 그리고 대중 운동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젊은 남녀의 지식 함양과 그들을 사회의 바른 일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그투나 인민학교(Sigtuna Folkhögskola, 성인 대상 실용 교육기관)를 설립하였다.⁶⁾

이 시기에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던 사람은 시그투나 인민학교의 교장 하랄드 달그렌 (Harald Magnus Dahlgren, 1861-1935)과 그의 여동생

6) Sigtuna Folkhögskola. 1934. 『Prospekt från Sigtuna Folkhögskola』, Sigtuna Boktryckeri. 2-3 쪽. 엘사 베르나도트와 만프레드 보크퀴비스트에 관한 설명은 이효진(2018) “신여성 최영숙의 삶과 기록: 스웨덴 유학 시절의 신화와 루머, 그리고 진실에 대한 실증적 검증” (『아시아여성연구』57-2)에서 발췌, 수정하였다.



[사진 2] 달그렌 가족과 최영숙
(출처: Härnösand 하랄드 달그렌 아카이브)

가족이었다. 하랄드는 1927년부터 교장직과 함께 시그투나 재단의 인문주의 교육 기구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했다. 최영숙은 시그투나의 최초의 동양인 유학생이었고 (아마도 그 작은 도시의 최초의 동양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등장은 무척이나 센세이셔널한 것이었던 모양이

다. 하랄드 교장은 최영숙을 알뜰히 챙겼는데, 최영숙은 종종 그의 집에 초대받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다. 특히 하랄드 교장의 여동생인 안나 달그렌(Anna Dahlgren, 1865-1964)과 그의 아들 에릭(Erik Dahlgren, 1897-1989)은 최영숙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을 쌓았다. 최영숙은 안나의 집에 종종 초대되어 식사를 함께했고, 목사 집안이었던 달그렌 가족의 목사관에 함께 묵으면서 짧지만 찬란한 스웨덴에서의 여름을 지내기도 했다. 에릭은 최영숙에게 자전거 타는 법과 보트의 노젓는 법을 알려주었고, 안나는 일기에 최영숙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이 기록들은 모두 현재 스웨덴 북부의 하랄드 달그렌 아카이브(Harald Dahlgren arkiv)에 보관되어 있는데,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과 기록들은 최영숙이 달그렌 가족의 일원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하랄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집에 온 아이’처럼, 사랑받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이번에 소개되는 자료들은 최영숙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중요한 1차자료들이다. 하지만 이 자료 속에 등장하는 한손 씨가 누구인지, 한국에 있는 영국인 의료 선교사는 누구인지, 엘사 세데그렌이 사촌인 황태자 구스타프 6세(Gustaf VI Adolf, 1882-1973) 보다 일여 년 먼저 한국을 방문한 연유와 행보에 대한 것 등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 자료들이 단서가 되어 최영숙 연구, 나아가서는 한-스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더욱 밝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2. 엘사 베르나도트의 편지 (1926년 8월 28일자 편지)

(출처: 시그투나스티프텔센 도서관 아카이브)⁷⁾

1926년 8월 28일

만프레드 보크퀴비스트(Manfred Björkquist) 교장님, 시그투나

저는 교장 선생님께 시그투나 인민학교의 겨울 학기에 관한 정보를 얻고 여기에 입학을 하려하는 여학생의 적합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그녀는 조선인으로 밝혀졌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들 중, 갑자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지인 한 명도 없이 말이죠. 그녀는 두 장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장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스웨덴 사업가가 스톡홀름에 있는 중국 잡지사의 한손 씨(Ms. Hansson)에게 보낸 것이고, 또 다른 한 통은 제가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는 영국인 여성 의료 선교사의 편지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 선교사와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며 미국 감리교 선교사와 함께 일합니다. 이 여학생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만났던 여성 관리자가 운영하는 여자기독교학교(역자주: 이화학당)를 다녔습니다.

지난 4년간 그녀는 중국 난징에서 지내면서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녀는 조국에서 도망쳐 나왔고, 만약 조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녀의 다른 친구들이 겪었던 것처럼 감옥으로 보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중국 국적을 가졌고 22살입니다.

그녀는 스웨덴 책을 공부하며 스웨덴의 학교 시스템에 대해 배웠고 이것이 미국의 것보다 더 진정된 것이라 생각해 여기까지 유학을 왔습

7) 원자료에는 문단이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지만 가독성을 위해 역자가 임의로 문단을 나누었다.

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저가 그녀와 함께 한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는 한손 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한손 씨는 그녀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하고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그녀의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손 씨는 그 여학생을 위해서 교외에 있는 친구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혼자 지내거나 아이와 하녀와 같이 지내면서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손 씨는 그녀의 신실한 영혼에 감동을 받고 그녀에게서 좋은 점만을 찾고 이야기합니다.

한손 씨와 저는 어느날 이번 겨울 이 여학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학생이 겨울 학기에 알맞을지 그리고 학교에 이 학생이 알맞을지, 이 조선인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교장 선생님께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동안 그녀는 어떤 수업도 듣지 않았지만 스스로 충분히 스웨덴어를 익혔습니다. 그녀는 언어에 아주 뛰어난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충분히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매달 40 크로나(역주: 스웨덴 화폐 단위)를 보내고 있으며 한손 씨는 그녀의 강좌 등록비의 나머지 부분을 기꺼이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전체 강좌비는 모든 걸 다 포함하여 400에서 450 크로나가 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여학생이 시그투나에 가는 것이 알맞은지 어떨지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결정을 돕기 위해 이 학생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적어 보냅니다. 아마 수업들이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시그투나 인민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스웨덴 문화에 대한 좋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당신의 의견을 듣고 강의계획을 받아 볼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더 알맞은 것을 우리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누군가 이 젊은 한국 청년에게 가능한 풍요롭고 보람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쁜 일이 될 거예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엘사 베르나도테 아브 뷔스보리 (Elsa Bernadotte af Wisborg)

3. 최영숙의 죽음, 그 후: 하랄드 달그렌의 추모글 (Harald Dahlgren, “Young Sook Choi,” *Sigtunaringen* 1⁸⁾, 1934)

(출처: 시그투나스티프텔센 도서관 아카이브)

1926/27학기에 시그투나 재단에 들어올 기회를 얻은 젊은 스웨덴의 학생들은 한눈에도 이색적인 그녀의 모습을 마주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몽골계의 얼굴에 새까맣고 은은한 머리 사이로 비치는 빛나는 검은 두 눈동자를 가진 이는 바로 성은 최이고 이름은 영숙이라는 작은 한국의 소녀로, 인민고등학교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 우리의 유서 깊은 도시 시그투나에 등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영숙의 아버지는 기독교로 전향하고 소규모의 집단에서 살며 그의 동포들 사이에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저항하는 한국의 독립운동에 참가했고 일본의 감옥에서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들, 그리고 한국적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권위 있는 할머니로 구성된

8) 시그투나 인민학교에서 발행한 교내 잡지.

대가족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의 딸들은 관습과 부모님의 권위에 엄격히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의 학업 기회는 극도로 제한되었고 아들과 다르게 외부 생활을 즐기거나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조용히 그리고 기꺼이 봉사하는 법을 배우다 어느날 남편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가서 그와 그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영숙은 자신만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외세의 힘 아래에 있는 민족의 자유가 그녀의 가슴 속 깊숙히 들어와 있었고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도 내적인 민족의 부활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열정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공부에 대한 열정을 좇아 중국 난징에 있는 미국식 학교를 갔으며, 강한 절제와 굳은 노력으로 이 과정을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 서구식 교육을 가까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영숙이 대학에서 스웨덴에 관해서 공부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자유, 우리의 고등교육, 스웨덴 여성들의 지위, 그리고 우리의 하얀 겨울과 눈부신 여름밤들까지 영숙의 젊은 영혼은 이상적인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영숙은 스웨덴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영숙의 아버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돈을 판 돈을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는 중국 여권을 만들어 중국과 시베리아 그리고 유럽의 러시아까지 이르는 길고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의 몸으로 채 20세도 되지 않았었지만 영숙에게 두려움이라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 그녀는 스톡홀름의 쉘스브론(Skeppsbron)에서 빈 지갑을 들고 아는 이 하나 없이 스웨덴어도 하지 못 하는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자리도 찾았습니다. 곧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그녀를 찾아왔고, K.F.U.K의 소개로 시그투나인민고등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영숙에게 이(시그투나)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우리 재단의 인민고등학교는 바

로 그녀가 꿈꾸던 모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영숙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녀를 둘러싼 새 환경들에 적응했습니다. 늘 깊이 존경하는 눈으로 선생님들을 올려 보았으며 동무들 사이에서 친구들을 만들어 그들과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영숙은 친구를 곧잘 사귀었습니다. 모두가 동방에서 온 이 이국적인 작은 세에 관심과 애정을 가졌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영숙 집에 초대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영숙은 우리와 함께 집에서 기꺼운 나날을 보냈고, 스웨덴에 있는 모든 기간 동안 마치 ‘집에 온 아이’처럼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영숙은 다른 평범한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그녀의 지성은 특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영숙은 모국어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스웨덴어까지 쓰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언어에 익숙해졌고 비록 아주 유창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무런 장애없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쓰는 표현들과 속어들까지 영숙은 모두 이해했습니다. 영숙은 바늘과 실을 사용하는 일에서 아주 세련된 취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은 또한 음악적이기도 했는데 그녀의 작은 조국의 노래를 부르거나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영숙은 우리 낯선 외국인과 사회적 습관을 보듬고 우리의 진지함과 유머까지 모두 잘 이해했습니다. 물론 인종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간극을 어느 순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숙과 함께 하는 동안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강하고 가까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인성을 지녔습니다. 무신경해 보이는 그녀의 겉모습 속에는 큰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비정상적일만큼 진실에 충실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에는 따르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성향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도 했으며 독립심이 그녀의 자존감과 맞닿아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한 의지는 영숙의 따뜻하고 신실하며 참여적이고 감사하는 마음과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숙은 하느님을 굳게 믿으며 그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은 양심적인 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처럼 기뻐하며 영숙은 이 나라에서 다른 또래 소녀들과 같이 자연으로 가서 스포츠와 여유를 즐기고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동무들과 어울리며 여름을 지내기 위해 시그투나피에르덴(Sigtunafjärden)의 주변에서 암석이 있는 해변에서 수영하고 풀밭에서 도시락을 꺼내면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곧 자전거를 능숙하게 배웠고, 한 여름날 오후의 교외에까지 자전거로 긴 하이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억은 영숙이 아마 스웨덴에서 가져간 가장 즐거운 기억이 아닐까요.

시그투나에서 스톡홀름으로 옮긴 후, 수도에서의 살면서 바뀐 환경들은 영숙에게 스웨덴 사회의 새 측면을 보게 했고 그녀를 많은 수의 사람들과 교류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스웨덴의 아주 중요한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뒤쳐지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자 했던 영숙의 목표는 그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숙은 결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사회연구소에 지원했고 여기에서 열정적으로 일해 1930년 아름다운 학위를 받으며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향수병이 영숙을 덮쳐왔습니다. 영숙은 반드시 그의 조국, 그의 집, 그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늙은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영숙은 대부분이 그녀의 두 손으로 직접 마련했던 자그마한 여행 경비를 들고 1931년 2월에 스웨덴을 떠났습니다. 영숙은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보기를 희망했습니다. 베를린부터 파리, 제네바, 아테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영숙은 많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이로 항구를 끝으로 한동안 소식이

끊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그녀에게 닿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반년이 더 지난 11월에서야 켈거타(역주: 콜카타의 옛이름)에서 한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영숙은 고국으로 출발하기로 했고 도착하면 스웨덴에 있는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도 우리는 영숙에게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도쿄에 있는 스웨덴인에게 다음과 같은 청탁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망망대해에서 한 한국인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우리의 훌륭한 도쿄 공사인 홀트만 박사는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1933년 5월, 그는 우리에게 어린 최영숙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됐다고 알려 왔습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된 최영숙의 운명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나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은 조국과 그녀의 집과 그녀의 늙은 아버의 곁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그녀가 꿈꿔왔던 일, 서울이라는 부유한 수도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덮쳐온 죽음에 그녀는 오직 그 시작만을 보고 떠나버렸습니다.

영숙이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우리는 그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그투나 인민고등학교에서 스웨덴에서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얻었고 영숙은 우리의 가치있는 학생이었습니다.

H. 달그렌 (H. Dahlgren)

